

조선오만분일지형도(朝鮮五萬分一地形圖)의 제주도 사찰

한 금 순*

국문요약

조선오만분일지형도는 조선총독부가 주관하여 조선토지조사국에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측량하여 제작한 지도이다. 이 중 제주도 지도는 도엽 11개로, 1917년~1918년 측도하고 1918년~1919년에 발행하였다. 이 제주도 지도 속에서 제주불교 관련하여 사찰 3개소(관음사, 소림사, 법정사)와 고탑 1개소(불탑사오층석탑)가 확인되었다. 지도라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사찰의 지리적 위치와 지형적 특성, 인근 지역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경도 위도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했을 때, 1918년의 관음사 위치는 현재 관음사 경내임이 확인되고, 1949년 제주4.3사건으로 소각된 이후 현재 복원되지 않고 있는 소림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법정사의 1918년 위치는 현재의 의열사에서 200여 미터 남쪽 지경으로 파악된다. 무오법정사항일운동발상지를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확인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로, 조선오만분일지형도는 1918년의 법정사의 지리정보를 경도 위도 수치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한 좌표 수치는 면적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 정확한 하나의 지점을 나타내주는 수치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실제 위치는 좌표를 중심으로 한 인근 면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도를 통해 관음사, 소림사, 법정사로 이르는 도로 정보와 주변의 황지(荒地), 활엽수림 등의 상황 및 주거 시설 상황도 파악되어 1918년의 제주도 사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본 연구로 법정사의 1918년 좌표가 제공되었고 제주법정사항일운동 이전의 법정사 상황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서 항일운동 이전에 제주 불교사찰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은 기존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의 법정사와 법정사 거주 인물의 정체성 의견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제주도지도, 관음사, 소림사, 법정사

* 남녕고등학교 교사

I. 머리말

조선오만분일지형도는 근대지도로 우리나라 근대시기의 방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자료이다. 조선총독부가 주관하여 조선토지조사국에서 측량하였다. 행정경계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이 표시되어 있다. 각 도엽은 전국을 경도 15분 위도 10분의 기준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만들었다. 도엽마다 경도와 위도가 제공되는 점은 당대 시설에 대한 지리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는 이러한 특징으로 1910년~20년대 우리나라의 여러 시설들의 각종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중 제주도 지도는 도엽 11개로 만들어졌다. 1917년부터 1918년까지 측도하고 1918년부터 1919년 사이에 발행하였다. 이 11개의 제주도 지도 속에서 제주불교 관련 표식을 찾아보았더니 사찰 3개소(관음사, 소림사, 법정사)와 고탑 1개소(불탑사오층석탑)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제주도 지도 11개 도엽을 통해 1918년 제주불교의 모습을 추적해보려 한다. 지도라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지리적 위치와 지형적 특성, 인근 지역의 상황 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당대 활동하였던 제주도 사찰의 현황까지 함께 살펴보겠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국토지리정보원 등에서 원본을 제공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대지도자료>에서 원본을 제공하고, <한국근대지리정보>로 행정구역 검색과 분류기반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본고는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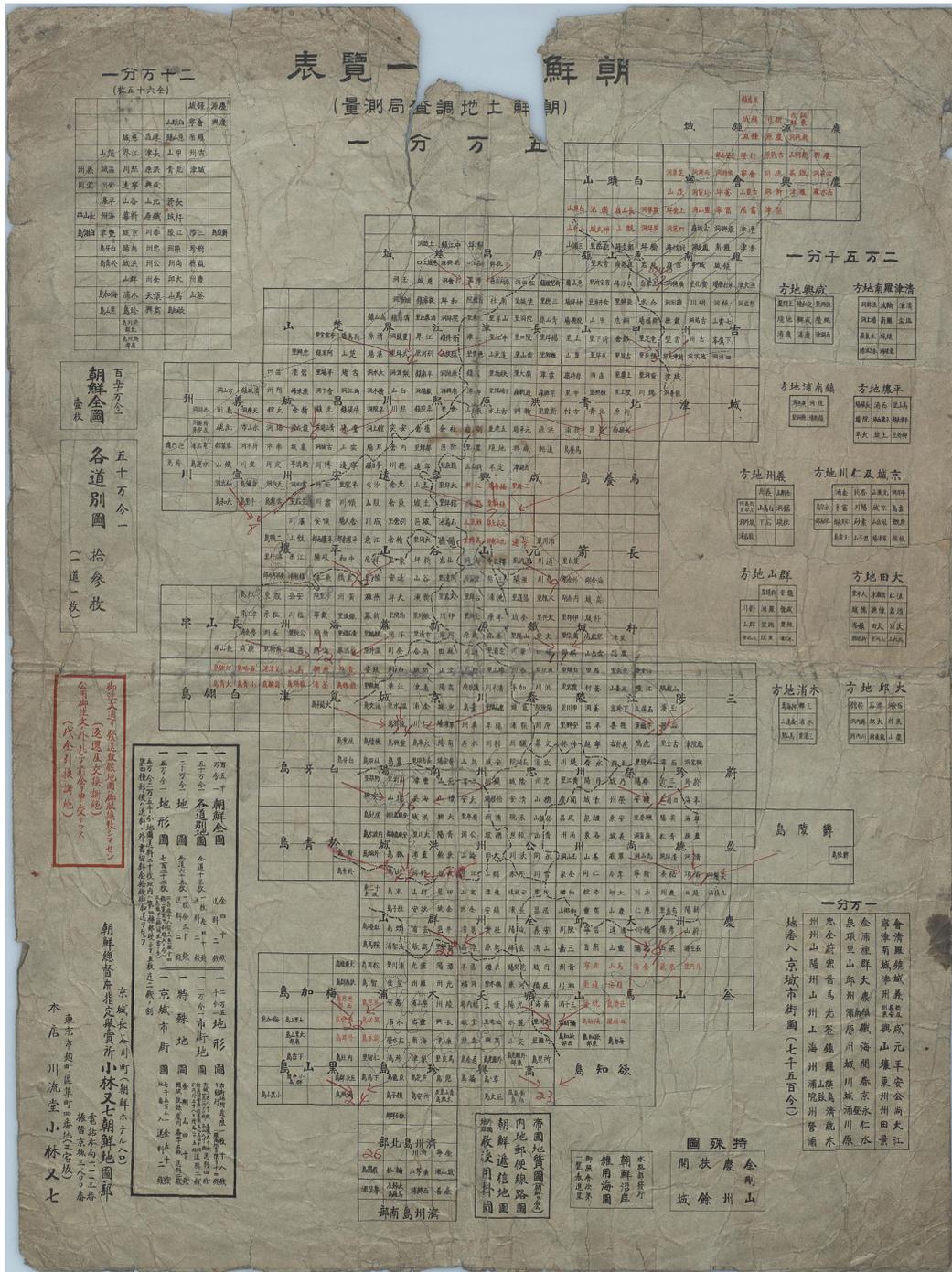
II.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제주도 사찰

1.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중 제주도 도엽의 특징

1)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개요

조선오만분일지형도는 삼각측량으로 만든 1:50,000 축척지도로 우리나라 근대지도의 효시이고 완성도가 가장 높은 근대지도로 평가받고 있다(김선희, 2008: 89). [그림 1]은 <조선전도일람표>이다.¹⁾ 이 <조선전도일람표>는 전국의 도엽 구획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朝鮮五萬分一地形圖)의 제주도 사찰



[그림 1] 조선전도일람표

1)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본 자료는 [그림 1]처럼 찢긴 채 제공하고 있으나, 목록에서 <조선전도일람표>라고 제공하고 있다.

전국을 경도 15분 위도 10분의 직사각형태로 일정하게 구분한 도엽을 제시한 일람표이다. 도엽이란 경도 위도 기준으로 구획하여 만든 지도 1장을 의미한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는 전국을 722도엽으로 구획하여 제작되었으며 117항목의 부호를 제시하고 있다.

조선토지조사국에서 측량하였고 각 도엽마다 저작권 소유자 조선총독부, 인쇄 겸 발행자 육지측량부가 기록되어 있다. 전국의 측도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했고, 1919년 2월까지 발행되었다. 1920년대 중반에 수정 측도하기도 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는 행정구역 표시는 물론이고, 교육시설(1,010건), 교통시설(371건), 군사시설(944건), 금융시설(8건), 사법시설(87건), 사회문화시설(1,289건), 산업시설(1,591건), 상업시설(916건), 의료시설(108건), 종교시설(1,668건), 치안시설(725건), 통신시설(514건), 행정시설(2,821건), 기타시설(139건) 등 방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²⁾ 위도와 경도를 기준으로 해 제작하여 지리정보를 파악해낼 수 있는 지도이기도 하다.

2)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중 제주도 도엽의 특징

<조선전도일람표> 중 제주도의 도엽은 다음 [그림 2]와 같이 개별 도엽 11개가 제작되었다. [그림 2]의 도엽명을 제주도 지도 위에 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2] 제주도 도엽명



[그림 3] 제주도 지도와 도엽명

11개 도엽의 제주도 지도의 측도 기간은 1917년부터 1918년까지이고, 1918년 제판(製版)했다. 발행은 1918년 8월 15일 추자군도를 시작으로 1919년 2월 28일 성산포와 한라

2) 한국근대지리정보 데이터는 계속해서 수정 갱신되고 있다. 2021년 2월 11일 데이터를 사용했다.

산 지도를 마지막으로 발행하고 있다.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제주도 지도 11개 도엽 현황

연번	도명(圖名)	구 분	측 도	제 판	인쇄	발 행
1	김녕	제주도북부 3호	1917	1918	1918.10.25.	1918.10.30.
2	성산포	제주도북부 4호	1918	1918	1919. 2.25.	1919. 2.28.
3	제주	제주도북부 7호	1917	1918	1918.10.25.	1918.10.30.
4	한라산	제주도북부 8호	1918	1918	1919. 2.25.	1919. 2.28.
5	추자군도	제주도북부 9호	1917	1918	1918. 8.10.	1918. 8.15.
6	한림	제주도북부 12호	1917	1918	1918.11.25.	1918.11.30.
7	비양도	제주도북부 16호	1917	1918	1918.10.25.	1918.10.30.
8	표선	제주도남부 1호	1917	1918	1918.10.25.	1918.10.28.
9	서귀포	제주도남부 5호	1917	1918	1918.12.25.	1918.12.28.
10	대정 및 마라도 ³⁾	제주도남부 9호	1918	1918	1918.12.25.	1918.12.28.
		제주도남부 10호				
11	모슬포	제주도남부 13호	1917	1918	1918.10.25.	1918.10.28.

위 <표 1>의 구분 항목을 보면 제주도북부는 3호·4호·7호·8호·9호·12호·16호, 제주도남부는 1호·5호·9호·10호·13호이다. <표 2>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표 2> 제주도 구획 호수 구분

13	9호 추자군도	5	1	제주도 북부
14	10	6	2	
15	11	7호 제주	3호 김녕	
16호 비양도	12호 한림	8호 한라산	4호 성산	
13호 모슬포	9호 대정 및 10호 마라도	5호 서귀포	1호 표선	제주도 남부
14		6	2	
15	11	7	3	
16	12	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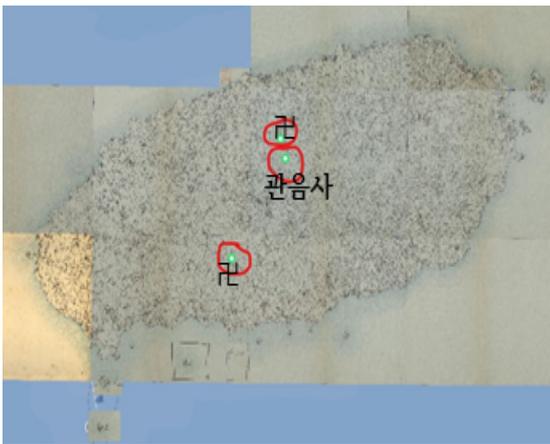
3) 도명 '대정 및 마라도'에 "본 도(圖)는 제주도 남부 9호 10호를 하나의 도엽에 수용시킨 것으로 그 관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특별히 접속 일람도를 신는다."라고 명기하고 모슬포(9호) 밑으로 마라도(10호)를 표시한 접속 일람도가 제시되어 있으며, 마라도 지도를 별도로 제시 수록하고 있다.

도엽의 구분 호수가 일련번호이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면 제주도는 바다까지 총 32개의 구역으로 구획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제주도북부 16개 구역, 제주도남부 16개 구역으로 구획하였다. 도엽 11개 중 도명 ‘대정 및 마라도’ 도엽에는 9호(대정)와 10호(마라도)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표 2>에 숫자만 표시되고 도명이 없는 곳이 20개소인데 여기는 바다에 해당한다. 바다는 별도의 도엽을 제작하지 않고 있으며, “조선연안 잡용 해도(海圖)는 수로부 발행으로 별도 일람표로 제공한다.”고 명기되어 있기도 하다. 경도 15도 위도 10도를 기준으로 구획하는 규칙에 의한 것이므로 바다도 당연히 구획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 도엽에는 또한 “제주도에서 밭과 대지는 하나의 구획마다 높이 1미터 내지 2미터의 돌담이 연속해서 늘어서 있는데 도상(圖上)에는 그 모습을 생략시킨다.”라고 명기하고 있기도 하다.

2.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중 제주도 사찰

1) 제주도 사찰 기록 현황



[그림 4] 제주도 사찰 3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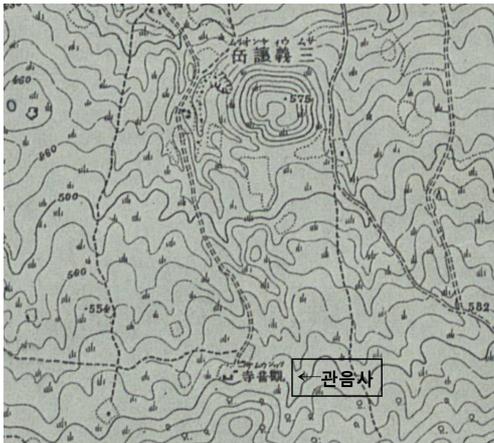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는 제주도 사찰 3개소가 기록되어 있다. 제주도 북부의 도엽명 <한라산>에 관음사와 삼의양악 북서쪽 민전동의 불우(叡)가 기록되어 있고, 제주도 남부의 도엽명 <대정 및 마라도>에 범정악의 불우(叡)가 기록되어 있다.⁴⁾ [그림 4]와 같다.

기타 제주도의 불교 관련 기록으로는 고탑(古塔) 한 군데가 제주도 북부의 <제주> 도엽에 표시되어 있다. 위치로 보았을 때 원당봉의 불탑사오층석탑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파악된다.⁵⁾

4)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종교시설 현황을 보면, 전국의 불우는 1,323개소이다. 신사는 전국 132개소이며 이중 제주도에 2개소, 야소교회당 전국 206개소 중 제주도에 1개소 기록되어 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대지리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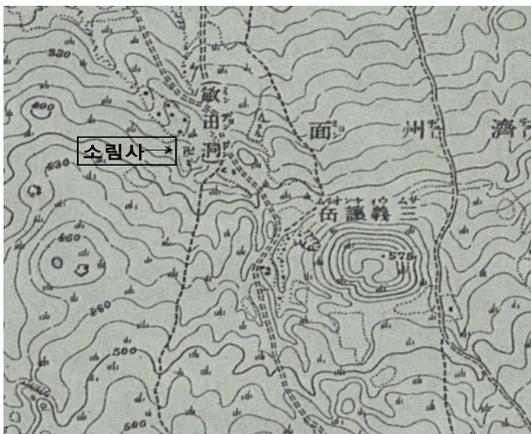
5) 전국적으로는 고탑이 16개소 표시되어 있다. 제주도 고탑의 지리정보를 보면 불탑사오층석탑을 가리키고 있다. 고탑의 지리정보는 경도 위도 값이 “126.59823942695706 / 33.52965177142059”이고(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대지리정보), 현재 불탑사오층석탑의 경도 위도 값은 “126.598523 / 33.52940”이다.(구글지도).



[그림 5] 관음사 부분지도

3개 사찰의 부분지도를 [그림 5] [그림 6] [그림 7]로 정리하였다.

관음사는 지도 속에 ‘觀音寺 クワンウムサ’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두 곳은 ‘ㄱ’자로 기록하고 있다. ‘ㄱ’자는 부호에 불우(佛宇)라고 제시하고 있다. ‘ㄱ’자 표시가 된 불우는 지리정보를 통해 소림사와 법정사로 파악된다. 삼의양악 북서쪽 민전동의 불우는 산천단에 있었던 소림사이고, 법정악의 불우는 법정사라 할 수 있다.



[그림 6] 민전동 불우(소림사) 부분지도



[그림 7] 법정동 불우(법정사) 부분지도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서 제주도 사찰이 기록된 도엽 현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제주도 사찰 기록 도엽 현황

사찰명	도명(圖名)	구분	측도	제판	인쇄	발행
관음사	한라산	제주도북부 8호	1918년	1918년	1919. 2.25.	1919. 2.28.
소림사	한라산	제주도북부 8호	1918년	1918년	1919. 2.25.	1919. 2.28.
법정사	대정 및 마라도	제주도남부 9호	1918년	1918년	1918.12.25.	1918.12.28.

관음사와 소림사는 <한라산> 도엽에 기록되어 있다. 1918년 측도하고 제판하였으며 1919년 2월 28일 발행하였다. 관음사는 1908년부터 활동한 사찰이고 소림사는 그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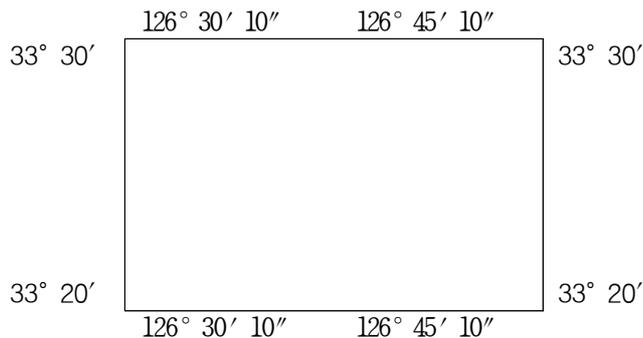
부터 활동하던 사찰이다. 이 지도는 1918년 관음사와 소림사의 존재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법정사는 1918년 측도와 제판을 거쳐 1918년 12월 28일 발행된 <대정 및 마라도> 도엽에 표시되어 있다. 법정사는 1911년 창건하였고, 이후 제주법정사향일운동이 준비되고 거행된 사찰이다. 1918년 10월 7일 거사 이후 일제는 법정사를 불태웠다. 지도 측도 시기가 1918년이고 1918년 12월 28일 인쇄되기까지의 작업기간을 고려하면 제주법정사향일운동 거사일인 10월 이전에 법정사를 측도하였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18년 제주법정사향일운동을 주도했던 법정사 승려와 신도들의 거점을 이 조선오만분일지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제주도 사찰 지리정보

조선오만분일지형도는 각 도엽을 경도 15분, 위도 10분 기준으로 구획하였는데 다음의 <표 4>와 같이 각 도엽의 상하좌우면 네 귀퉁이에 경도와 위도를 기록하고 있다.

<표 4> 도엽상 경도 위도 표기 사례 도식(한라산 도엽)



도엽 1개당 동서로 22.2Km, 남북으로 18.53Km 범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는 이렇게 경도와 위도를 측정해 낼 수 있는 지도로 당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본고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조선오만분일지형도를 분석해 <한국근대지리정보> 사이트로 제공한 지리정보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관음사, 소림사, 법정사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는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지리정보와 현재의 위치 지리정보를 함께 정리한 것이다. 경도와 위도의 수치는 정확한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는 숫자이고, 실제 장소는

면적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공하는 경도 위도의 수치는 해당 사찰의 정확한 한 지점을 표시한다고 보면 안 되고, 면적의 개념을 적용하여 수치 인근을 가리킨다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⁶⁾

<표 5> 제주도 사찰의 지리정보

사찰명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지리정보		현재 위치 지리정보(구글 지도)	
관음사	경도	126.55785134971312	경도	126.55832
	위도	33.42488013646452	위도	33.42379
소림사	경도	126.54998740322794	현재 사찰 없음	
	위도	33.44785378592783		
법정사	경도	126.4740514788485	현재 사찰 없음	
	위도	33.311200490554704		

지도에서 좌표를 추출할 때 ‘ㄱ’ 자의 상중하좌우의 어느 부분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데,⁷⁾ 본고의 좌표 수치는 지도 원본상의 ‘ㄱ’ 자의 가운데를 측정하였고, 관음사의 경우는 ‘寺’ 자 앞을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장소는 면적을 고려해야 하므로 지도상에서 표식을 입구에 했느냐 중앙에 했느냐에 따라라도 좌표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경도의 1분 차이는 1.48km 위도의 1분 차이는 1.853km, 경도의 1초는 25미터 위도의 1초는 30미터 정도라서 초의 자리수와 소숫점 셋째 자리수가 지시하는 곳을 반경으로 면적을 적용하면 비교적 일치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면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곳인 경우는 초의 자리수 정도의 차이로도 실제로는 수십 미터 다른 장소를 측정할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⁸⁾ 그러므로 본고에서 제시한 좌표 수치는 특정 장소의 정확한 한 지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대강의 위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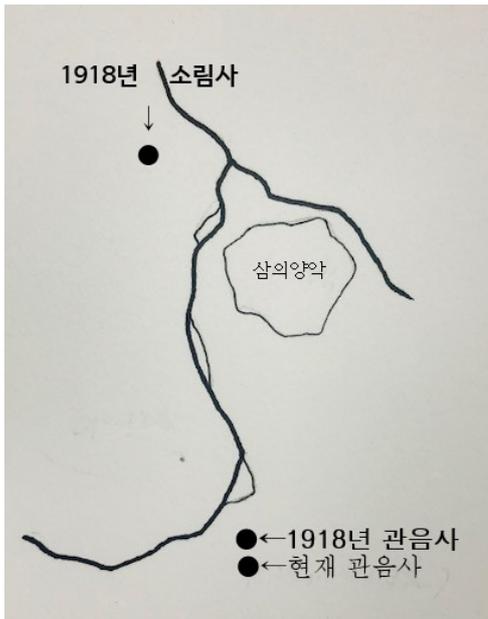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경도 위도 정보로 관음사와 소림사의 위치를 다음 [그림 8]로, 법정사는 [그림 9]로 위치를 표시하였다.⁹⁾ 관음사는 1918년과 현재의 위치를 표시하였

6) 1918년 당시 지도를 제작함에 있어 ‘ㄱ’ 자 표시를 정확한 좌표 위치에 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생각하였다. 그래서 현재 1918년에 설치되었던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제주우체국 등의 좌표를 찾았더니 1918년과 현재의 좌표가 거의 동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면적의 규모가 큰 경우 입구, 가운데 지점, 중심건물 등 어디에 표시를 했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7) 지도상에서 ‘ㄱ’ 자 표식 근처의 건물 모양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8) 본고의 3개 사찰 중 관음사만 면적을 알 수 있고, 법정사와 소림사는 폐사된 사찰로 면적을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법정사와 소림사의 경우는 본고에서 제공한 좌표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9) [그림 8]과 [그림 9]는 좌표에 의거한 정확한 위치를 그린 것이 아니고 눈대중으로 그린 것으로, 대강의 위치를 알려고 한 그림이다.



[그림 8] 1918년 관음사와 소림사 위치 (김석범 구술, 2018), 1918년의 좌표 수치는 현재 대웅전보다 150여 미터 북쪽으로 확인된다.

고 소림사는 1948년 11월 제주4.3사건으로 전소된 이후 현재 사찰이 없어서 1918년의 위치만 표시하였다. 법정사도 현재 사찰이 없으므로 1918년의 위치를 의열사와 하천을 중심으로 보면 된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관음사 좌표와 현재 관음사의 좌표를 비교하면, 1918년의 관음사와 현재 관음사는 같은 경내로 파악된다. 1918년의 관음사는 1939년 7월 20일 전소되었다(매일신보, 1939). 이후 1941년부터 재건축되었다가 제주4.3사건으로 1949년 2월 12일 다시 한 번 전소되었다. 현재의 관음사는 1969년부터 신축된 건물로 조성되었다. 지금 관음사의 위치에서 북쪽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기도 한데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음사의 경우 면적이 대략 3만여 평인데, 단순 계산하여 정사각형 대지라고 해도 한 면이 최소 300여 미터가 되므로 지도에 표식할 때 입구에 했느냐 중앙지점에 했느냐 등등에 따라 거리 측정이 달라질 요소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1918년의 소림사는 산천단에서 380여 미터 서쪽 지점이다.



[그림 9] 1918년 법정사 위치

1918년의 법정사와 현재 무오법정사항일운동발상지로 지정된 지점과 거리를 측정해 보면, 1918년 법정사는 현재 무오법정사항일운동발상지로 지정된 곳보다 북쪽으로 더 올라간 곳으로 고지천 서쪽 방향이며, 의열사보다 남쪽 지경으로 확인된다. 좌표상으로는 현재 의열사에서 남쪽 방향으로 직선거리 200여 미터, 무오법정사항일운동발상지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장소로부터 북서쪽으로 직선거리 200여 미터 정도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 또한 卍자 표시를 당시 법정사의 어느 지점에 했느냐에 따라 위치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본고는 대략적인 위치를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오법정사항일운동발상지는 고지천 동쪽에 유족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하여 지정하였는데, 이제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경도와 위도를 토대로 1918년 당시 법정사의 위치를 다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제주도 사찰 인근 현황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부호(符號)는 117항목이다. 이 부호를 통해 1918년 당시의 관음사와 소림사, 법정사 인근 지역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부호에서 도로 표시 용어는 7가지가 있는데, [그림 10]과 같다. <표 6>으로 설명하였다.

<표 6> 도로 부호에 따른 설명

	路道等一	一等道路	1등도로
	路道等二	二等道路	2등도로
	路達	達路	달로
	路聯	聯路	연로
	路間	間路	간로
	路小	小路	소로
	通ヲ車荷部ルサセ	荷車ヲセサル通部	짐수레 다니는 길

[그림 10] 도로 부호 및 설명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도로 정책은 1911년 ‘도로 규칙’과 1915년 ‘개정 도로 규칙’으로 행해졌다. 일제강점기 도로 구분을 <표 7>로 정리하였다.

<표 7> 도로 구분 및 관리 담당

도로규칙(1911년, 1915년 개정)		조선도로령(1938년)	
도로 구분	관리 담당	도로 구분	관리 담당
1등도로	조선총독	국도	조선총독
2등도로	조선총독	지방도	도지사
3등도로	도장관	부도	부윤
등외도로	부윤, 군수, 도사	읍면도	읍면장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도로 구분은 1등도로, 2등도로, 3등도로, 등외도로로 나누었다. 도로의 관리는 1등도로와 2등도로는 조선총독, 3등도로는 도장관, 등외도로는 부윤·군수 및 도사(島司)가 관리하였다. 1938년 ‘조선도로령’에 의해 각각이 국도, 지방도, 부도, 읍면도로 바뀌었고 국도는 조선총독이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지사, 부도는 부윤이, 읍면도는 읍면장이 관리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는 3등도로 부호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부호에서 도로의 폭은 1등도로가 가장 넓고 2등도로 > 달로 > 연로 > 간로 > 소로 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국도의 폭은 6~7미터, 지방도의 폭은 4~5.5미터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¹⁰⁾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제주도 지도를 살펴보면 제주도에 가장 폭이 넓은 도로일 것으로 보이는 부호의 용어는 달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마을을 연결하는 일주도로에 해당하는 도로인 달로가 실선 2개로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주 건입리에서 화북 삼양 조천 함덕 북촌 등지로 가는 일주도로는 달로이다. 이 달로에서 연로가 세분화되며 나뉘는데 부호는 실선과 점선의 합으로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촌의 달로에서 와흘까지 혹은 조천의 달로에서 와흘까지 연로가 나 있는 양상이다. 성내에서 광양동 구남동으로 아라리를 지나 한라산을 넘어가는 오늘날의 제1횡단도로는 연로이다. 산간 지역으로 들어가면 간로와 소로가 주로 표시되어 있다.¹¹⁾

(1) 관음사

관음사는 제주면에 속해 있다. 관음사에서 북쪽으로 해발 575미터의 삼의양악이 있다. 관음사까지 길은 간로로 표시되어 있고 관음사의 건물 표시 모양이 기록되어 있다. 부호를 따라 지도를 살펴보면 관음사 주변은 황지(荒地)와 활엽수림 지대로 표시되어 있다.

관음사까지 가는 도로는 민전동을 거쳐야만 갈 수 있게 나 있다. 죽성동에서 한라산을 향해 남쪽으로 올라 민전동으로 이어지는 간로가 있고, 아란동에서 남쪽으로 올라 민전동으로 오르는 간로, 아라리 연로(제1횡단도로)에서 남쪽으로 오르다가 죽성동을 향해 서향하는 연로¹²⁾를 따라가면 아란동에서 민전동으로 오르는 간로를 만난다. 소로도 하나 있는데 방선문으로 한라산을 향해 올라가다가 열안지악 동남쪽에서 관음사를 향해 동쪽으로

10) 일제강점기 도로 폭 규정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찾지 못하였고, 당대 주요 도로의 폭을 설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참조).

11) 일제강점기 제주도의 도로에 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일주도로가 범례 따라 달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일제강점기 제주도에 1, 2등 도로가 왜 없었는지 등에 대한 여타 도로 규칙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12) 죽성동에는 순사주재소가 있어서 연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 있는 소로를 가면 민전동으로 연결된 관음사로 가는 간로를 만날 수 있다. 모든 길은 관음사에서 끝난다.

관음사를 방문하는 기록에는 산천단 소림사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길 표시를 살펴보면 관음사로 가기 위해서는 민전동의 소림사를 지나야 갈 수 있도록 길이 나 있었기 때문임을 지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소림사는 관음사 소속 사찰로서의 역할 때문에 관음사 승려 및 방문객이 들렀던 것만이 아니라 소림사를 거쳐야만 관음사에 갈 수 있는 도로 구조였음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소림사

소림사는 제주면 민전동에 있었다. 민전동은 산천단 인근 명칭이었다. 소림사 인근은 황지(荒地) 표시와 침엽 독립수(獨立樹) 2개가 소림사 동쪽에 표시되어 있다. 소림사는 산천단 절로 통칭되는 곳이었다. 인근에 주거지 표시가 여러 군데 있다. 소림사까지 오르는 길은 관음사 가는 길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죽성동에서 남쪽으로 오르는 길, 아란동에서 남쪽으로 오르는 길, 인월동에서 남쪽으로 오르다가 죽성동을 향해 서향하는 길을 따라가면 아란동에서 민전동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날 수 있다. 소림사의 간로는 관음사까지 이어져 끝난다. 좌표상으로 소림사와 관음사의 거리는 2.8Km 정도로 측정된다.

(3) 법정사

법정사는 좌면 법정동 법정약 동남쪽에 있다. 법정약은 해발 760미터 고지이고 바로 인근 동쪽에 법정사가 있으며 근자 바로 밑에 주거지 표시 2개소 및 대여섯 개의 주거지 표시가 근처에 보이며, 법정동에는 주거지 표시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부호에 따라 지도를 보면 법정사 인근은 황지(荒地)와 활엽수림 지대이다.

법정사까지는 소로가 여러 개 표시되어 있다. 한라산을 향해 북쪽 법정사로 오르는 길은 영남리에서, 도순리에서, 하원리에서, 회수리에서, 중문리에서 오를 수 있는 길이 표시되어 있다. 간로에서 출발하다 산속으로 들어가면 소로가 되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정사에서 한라산 방향 북쪽으로는 표고재배장까지 이르러 소로가 끝난다.

이상 조선오만분일지형도를 통해 1918년의 제주도 사찰 관음사, 소림사, 법정사의 현황을 살폈다. 1918년의 관음사의 위치와 현재 복원하지 않고 있는 소림사와 법정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Ⅲ. 1918년 제주도 사찰 현황

1910년대의 제주도 사찰로는 관음사, 소림사, 법정사, 만덕사, 불탑사 등이 파악되어 있다. 만덕사는 1912년, 불탑사는 1914년에 창건되었음을 개별 사찰의 창건기로 파악하고 있다(한금순, 2013b: 84). 사찰의 창건기는 불우를 다 갖추기 이전의 활동부터 창건 시점으로 잡기도 한다. 만덕사와 불탑사의 경우 1910년대에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해도 불우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하는 상황으로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 파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는 불탑사 지경인 원당봉에 고탑(古塔)으로 탑이 있음을 표시를 하고 있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불우 현황과 일치하는 제주도 관음사와 소림사, 법정사의 활동은 다른 기록에도 1918년경의 활동 상황이 있다. 이 3개 사찰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관음사

관음사는 1908년 창건하였다(한금순, 2013b: 21, 25). 승려 안봉려관과 김석윤의 관음사 창건 기록이 다수 남아있다(한금순, 2010: 254-265). 매일신보가 1918년 3월 제주도 관음사 기사를 싣고 있고 김형식의 『혁암산고』, 백환양의 「한라산 순례기」, 이은상의 『탐라기행』, 『회명문집』, 『망형석성도인행록』, 오이화의 『조사』 등의 기록이 관음사의 창건부터 활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관음사는 1909년 초가 법당을 마련하였고, 1910년 통영 용화사의 불상과 탕화를 이운해 왔다. 이후 1918년에 이르러서는 신도가 수백 명이 되어 법당을 새로 짓기로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한금순, 2010: 260-264).

관음사는 1918년 6월 11일 대본산 대흥사 제주도포교당으로 조선총독부로부터 포교소 설립을 허가받았다. 일제강점기 사찰령에 의한 절차인데, 당시 제주도에서는 관음사가 유일하게 설립 허가를 받은 사찰이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 관음사만 사찰명으로 기록하고 나머지는 근자로 표시한 것은 이러한 포교소 설립 허가 현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918년의 관음사는 1939년 7월 20일 전소되었다가(한금순, 2010: 278) 1941년부터 다시 복원을 시작하여 1946년까지 중창되었다. 그러나 1949년 2월 12일 제주4.3사건 당시 토벌대가 관음사 전각 7채를 소각하였다(한금순, 2019: 288). 이후 관음사 일대는 출입금지 지역이 되었다가, 지금의 관음사는 1960년대 말부터 다시 복원한 것이다.

2. 소림사

소림사는 산천단에 있던 사찰이다. 소림원으로 기록에 남아 있기도 하다. 관음사 창건 이전에 있었던 사찰로 파악된다. 관음사를 창건한 안봉려관은 산천단 소림사에서 운대사에게 가사를 전수받았다. 운대사는 1894년 출가한 승려 김석윤일 것으로 연구되어 있는데(한금순, 2013a: 301-302), 김석윤은 1945년 소림사 주지 기록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한금순, 2013a: 297). 산천단의 소림사는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으로 한라산신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한금순, 2018a: 290). 관음사 승려인 안봉려관, 오이화, 김운하, 이세진 등이 소림사 활동을 하였다. 소림사는 제주4.3사건으로 토벌대가 1948년 11월 민전동 마을과 함께 소각하였다(한금순, 2019: 289). 그리고 지금까지도 복원하지 않고 있다.

3. 법정사

법정사는 1911년 창건되었다. 관음사를 창건한 안봉려관과 김석윤이 창건하였다. 법정사는 1914년경부터 김연일 등이 항일운동을 준비한 사찰이다. 1918년 10월 7일 새벽 예불에 참여한 34명이 선봉이 되어 지역 주민 700여 명과 함께 화승총 등으로 무장하여 중문리 경찰관주재소를 방화하였으며 일본인을 구타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법정사 승려들은 체포되었고 법정사는 불태워졌다(한금순, 2018b: 101-106). 이후 지금까지 복원하지 않고 있다.

제주법정사항일운동이 조명되고 나서, 고지천 동쪽에 무오법정사항일운동 발상지가 제주도 지정 문화재 기념물 제61-1호로 지정되어 있고, 고지천 서쪽에 추모시설 의열사와 기념탑이 건립되어 있다. 이제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서 파악되는 경도와 위도 지리정보를 통해 1918년의 법정사의 위치를 새롭게 찾을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IV. 맺음말

조선오만분일지형도는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우리나라 전국을 측량하여 제작 1918년부터 1919년까지 발행한 지도이다. 당대의 행정시설을 비롯한 사회 주요 시설들이 총망라되어 기록되어 있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중 제주도 지도는 총 11도엽이다. 1917년부터 1918년까지 측량하였고 1918년부터 1919년까지 발행하였다. 이 제주도 지도에서 제주불교 관련 시설을 찾아보았더니 사찰 3개소와 고탑 1개소가 확인되는데, 관음사, 소림사, 법정사, 불탑사오층석탑이 고탑으로 표시되어 있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를 통해 1918년의 관음사, 소림사, 법정사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하였다. 주변의 주거 시설과 지형적 특징을 살필 수 있었고, 각 사찰로 가는 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조선오만분일지형도는 경도 15분 위도 10분을 기준으로 구획한 지도라 1918년의 관음사, 소림사, 법정사의 경도 위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고는 지도상에서 ‘卍’이라는 글자의 가운데를 관음사는 ‘寺’의 왼쪽 지점의 좌표를 측정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좌표가 정확한 하나의 지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면적을 생각하여 좌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1918년 제작 당시 지도상에 사찰표시를 일주문에 했는지 대웅전에 했는지 등에 따라 좌표 수치는 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그 수치의 폭이 클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본고를 통해 제주도의 불우로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 기록된 법정사의 좌표를 밝혀낼 수 있다는 점은 과거 제주법정사항일운동 연구에 있어 논란이 되었던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기존 연구에서 법정사가 불교사찰이 맞는지와 법정사를 주소로 하고 있는 김연일 등의 항일운동 주도자들이 불교도가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법정사는 항일운동 이전에 이미 파악되고 있던 제주도의 불교사찰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본고는 1918년 제주법정사항일운동을 기념하는 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오법정사항일운동발상지 문화재 지정 구역의 수정과 항일운동 추모사업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논저

- 권태연 편역, 1991, 『회명문집』, 도서출판 여래.
- 김석익, 1949, 『망형석성도인행록』,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 김선희, 2008, 「『오만분일지형도』에 나타난 20세기 초 한반도의 지명 분포와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3권 제1호, 대한지리학회.
- 김형식 저, 오문복 역, 2004, 『혁암산고』, 북제주문화원.
- 오이화, 1949, 『조사(弔詞)』,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 오창명, 2019, 「일제강점기 1대 5만 지형도(1918~1919) 지명의 허실-제주도 지명을 중심으로」, 『지명학』 31, 한국지명학회.
- 이은상, 1937, 『탐라기행』, 조선일보사.
-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
- 조선불교중앙교무원, 1930, 『불교』 제71호.
- 한금순, 2004, 「한국전쟁시기 제주도 불교계의 현황과 분석」,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Ⅱ』, 한국전쟁피해조사보고서 제주도편,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121-139.
- _____, 2007,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정토학연구』 제10집, 한국정토학회.
- _____, 2010, 「안봉려관과 근대 제주불교의 중흥」, 『정토학연구』 제14집, 한국정토학회.
- _____, 2013a, 「승려 김석윤을 통해 보는 근대 제주인의 사상적 섭렵」, 『대각사상』 제19집, 대각사상연구원.
- _____, 2013b,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경인문화사.
- _____, 2018a,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과 제주불교」, 『대각사상』 제29집, 대각사상연구원.
- _____, 2018b, 『제주법정사항일운동』, 서귀포신문.
- _____, 2019,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사회참여활동」, 『대각사상』 제31집, 대각사상연구원.

2. 기타

- 구글지도(<https://www.google.co.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지도자료(<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nm>)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지리정보(http://db.history.go.kr/hgis/mod_g1/main.do#)
- 국토지리정보원(<https://www.ngii.go.kr>)
- 김석범(1925년 생) 구술, 2018년 4월 4일.
- 매일신보, 1918년 3월 2일자.
- _____, 1939년 7월 25일자.
- 『조선총독부 관보』 제1755호(35권, 143면), 1918년 6월 13일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Jeju Buddhist Temples in the 1:50,000 Topographic maps of Joseon

Han, Geum-Soon*

The 1:50,000 Topographic maps of Joseon was produced by the Bureau of Land Surve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It is on the basis of measurement from 1914 to 1918. It includes the 11 sheets of Jeju, which were measured from 1917 to 1918 and published from 1918 to 1919. In this survey on these maps of Jeju, we find out the Buddhist sites in Jeju; 3 Buddhist temples (Gwaneumsa, Sorimsa, and Beopjeongsa) and a pagoda (The five storied pagoda of Bultapsa). In addition, we can confirm the geographic locations and topographic conditions of these Buddhist sites and their surrounding areas.

On the basis of the geographic information including coordinates from *the 1:50,000 Topographic maps of Joseon*, the location of Gwaneumsa in 1918 is in the current grounds of the same temple. The research can also confirm the location of Sorimsa from the maps. Sorimsa has not been restored yet after the incineration in the Jeju 4.3 incidents. Furthermore, we confirm the location of Beopjeongsa in 1918 on the maps that is located approximately 200 meters south from the current Uiyeolsa. *The 1:50,000 Topographic maps of Joseon* are newly found, which were not known at the time of the designation of *the Birthplace of Beopjeongsa Anti-Japanese Movement*. However, we should consider the area of temple sites when specifying their exact locations with these figures of geographic information. Therefore, the exact locations of the temple sites must have been somewhere around their geographic coordinates.

Additionally, we can confirm the access information to Gwaneumsa, Sorimsa, and Beopjeongsa and their surrounding area including the broad-leaved forests, wastelands, and residences.

Above all, the geographic coordinates of Beopjeongsa in 1918 are found by this research. Beopjeongsa is depicted as Buddhist temple on The 1:50,000 Topographic maps of Korea. It also describes the surroundings of Beopjeongsa before Beopjeongsa

* Teacher, Namnyeong High School

anti-Japanese movement. Therefore, my finding will be evidence for the previous researches of Beopjeongsa anti-Japanese movement and the testimonies of personal identities of residents at Beopjeongsa.

Key Words : The 1:50,000 Topographic maps of Joseon, The map of Jeju-do, Gwaneumsa, Sorimsa, Beopjeongsa

교신 : 한금순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3길 18-6
(E-mail: sanhana@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21. 01. 04

심사완료일 : 2021. 02. 01

게재확정일 : 2021. 02. 07